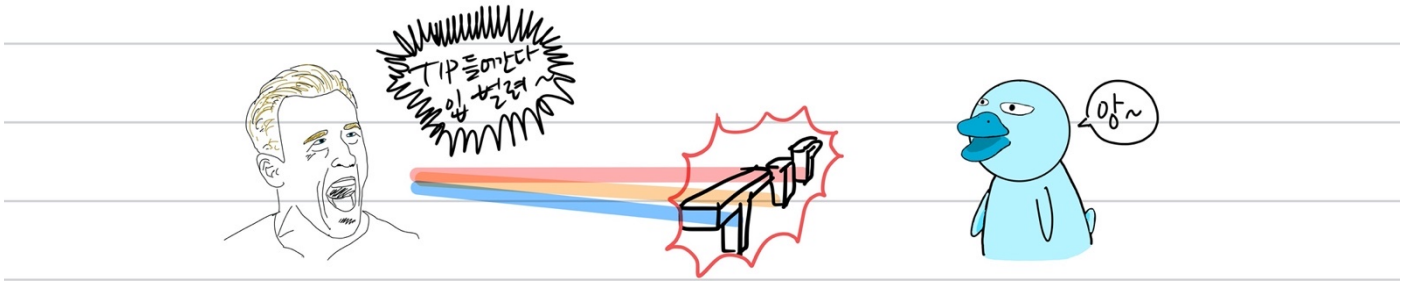


9평 대비 배포 자료

[TIP!] 시험 전략에 대하여

국어 내의 각 과목들이 일정한 궤도에 오른 학생들은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1. 가채점표는 무조건 쓰세요

수능 날 대부분 가채점 표를 쓰는 걸 엄두에 둘 거고
그렇지 않다면 성적이 나오는 3주간 불안에 떨며 제대로 된 입시 전략도 세우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겁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단 외면합니다. 두려우니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수험생은 수능 직후 본인의 수능 성적이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입시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맨날 말하는 건데, 결국 마지막에 승리해야 합니다.
합격증 받을 때 입시는 끝나요.

그런데 이걸 수능 직전에야 연습할 건가요?
6모 9모 같은 중요한 기회에 이를 연습하지 않을 건가요?

자 이 정도면 가채점표를 쓰는 쪽이 설득력 있어 보이죠?

가채점표를 시간이 나면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되면 안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2. 하지만 가채점표를 쓰면 시험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당연하죠.
OMR도 다 못 쓰고 나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여러분은 80분 내내 집중 하시나요?

저는 못합니다.

연속성있게 집중하면 오히려 마지막 비문학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 와중에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 그러면 OMR&가채점표 작성 시간을 이용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이용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아래와 같이 시험을 볼 겁니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학 → 화작문 → 독서

제가 문학을 먼저 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집중력 때문입니다.

화작문은 무조건 다 맞춰야 하는 변두리 과목이라는 인식이 여러분을 나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메인 과목인 문학을 먼저 보면 집중력을 한번에 확 끌어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름 잘 먹혔습니다.

둘째, 실수의 빈도 때문입니다.

문학은 헛갈리는 선지가 많고 다른 과목보다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지문에서 근거가 갑자기 안보일 때도 많아요.

절대 논리 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본다면 쉽게 풀릴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험 칠 땐 도저히 안 보이던 답이,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보이는 경험.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위권이어도 문학에서 헛갈리는 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문학을 먼저 풀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화작문 다음에 문학을 풀면 문학을 푼 직후에 검토해야 하지만

문학을 먼저 풀고 화작문을 다음에 풀고 그 후 검토를 하면

적당한 시간 차가 생겨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풀 여지가 많아집니다.

설득력이 있나요?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습니다.



독서 순서는 난이도 순입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괜찮을 때를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지문을 먼저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이 매우 어렵게 나왔을 시 15분 내에 풀지 못 할 수 있고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 과목이 끝날 때마다 쉬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갈수록 더 자주 쉬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80분 내내 일관된 집중력을 유지하는 건 힘들고 시험 종료가 다가올수록 지구력이 약해집니다. **이를 부정하지 마세요.** 모두들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평소같았으면 맞았을 문제를 시험 마지막에 체력이 떨어져 실수하였고, 독해도 마지막 가선 어영부영 대충 때우죠. **독해 훈련할 땐 이 지구력을 키워야 하지만, 실전에서는 본인의 약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전략을 짰습니다.



어차피 OMR과 가채점표는 작성해야 합니다. 이들을 작성할 땐 머리를 쓰는 작업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우린 이 때 약간의 휴식을 도모할 수 있어요.

- 문학 같은 '모 아니면 도'의 성격을 가진 과목의 경우엔 이들을 작성할 때 잠깐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정답을 고치거나, 이미 작성한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땐 OMR만 작성해 주세요.
- 독서 두 지문을 끝내면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일 겁니다. 이 상태로 장지문(일 확률이 높은) 마지막 독서를 들어가면, 지문 독해가 끝나갈 때쯤에 지구력이 바닥나 좋은 마무리를 짓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도 OMR을 작성하시는데, 작성할 게 지문 두 개밖에 없어 휴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채점표는 이때 작성합니다. OMR 카드를 보고 배끼면 되는 거여서 시간이 얼마 안걸립니다.
- 독서3에선 OMR을 같이 작성합니다. 문제가 얼마 안되잖아요. 가채점표는 굳이 작성 안해도 되는데, OMR 걷는 시간에 마지막 지문 답 6개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끝나고 마저 작성해도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OMR 제대로 썼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항상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 건졌습니다. 심지어 수능날에도 불안함 등의 감정 때문에 독해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이 방법을 통해 세 문제 이상을 옳게 고쳤습니다.

오늘 내용은 파이널 때 좀 더 자세하게 칼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걸 원치 않습니다. 딱 실력만큼만 보세요.

내일 간단한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의 팁들

1. 독서 3점은 나중에 몰아서 푸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본인의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2. 문학 안 보이면 바로 넘어가라.

문학은 원래 이렇게 푸는 거다.

2-1 당황하지 말고, 상황과 반응만 집자.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달라지면 반응하자.

+ (중략)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길

2-2 인물관계는 옆에 메모하는 것도 좋다.

3. 뭘 읽는지 모르겠다면, 잠깐 멈추고 흐름을 잡자. 이게 결과적으로 빠른 길이다.



[칼럼10] 지문 위 표시법

최근 쪽지가 하나 왔습니다.

국어 공부를 할수록 이해보다 표시하는 잡기술..?만 늘어나는것 같아요 순수 독해력을 끌어 올리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까요...?

저같은 범인은 지문 위에 표시를 하며 독해하지 않으면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아마도 표시를 하지 않으며 독해하는 분들보다 표시를 하며 독해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미리 다 정복해 놓고 가야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화시키는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문 위에 표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순수 독해력을 올리기 위함
2. 문제를 풀 때 잊은 개념 및 설명을 찾아가기 위함

1. 순수 독해력을 올리기 위함 - 지문 독해

공신으로 유명하신 강성태님의 저서에 이런 비유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받아들인 대로 써보겠습니다.

*오감을 모두 활용하는 공부를 해라. 인간이라는 비행기에는 5개의 엔진이 있다.
눈으로만 공부한다는 것은 이 중 하나의 엔진만으로 날겠다는 것과 같다.
손을 쓰고, 귀를 써라. 최대한 활용하라.*

미각, 후각, 청각은 시험장에선 쓰기 힘들죠. 평소에도 쓰기 힘듭니다. 쓸 수 있는 감각이 제한되니, 당연히 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을 쓰세요. 본인이 이해한 대로 간단하게나마 표현하세요.

2. 문제를 풀 때 잊은 개념 및 설명을 찾아가기 위함 - 지문 독해 후

우리는 독해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개념이나 중요한 개념 및 설명에는 어느 정도의 표시를 해 두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걸 표시해야 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하다보면 이게 오히려 독해를 망친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에 발전시킨, 작년에 만든 표시 체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즉각적인 정보 처리는 독해의 기본입니다.

이를 무의식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처리의 기본은 개념들 간의 층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상위개념이고 무엇이 하위개념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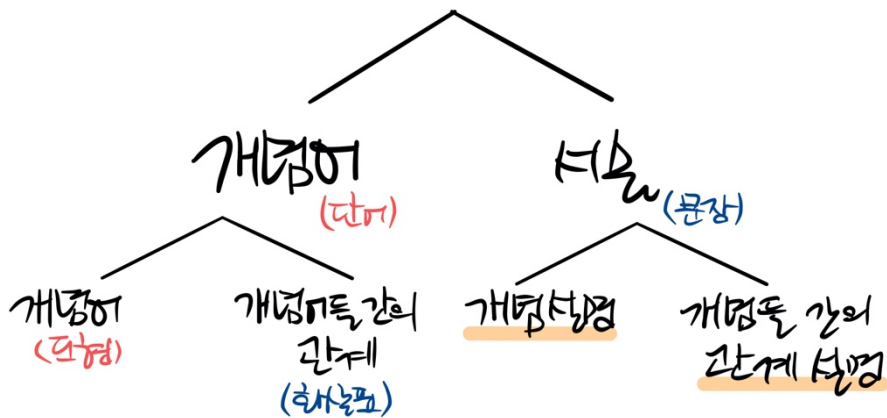
이 태도가 중요했던 지문이 바로 이번 6평 ict지문입니다.

디지털세를 본 후 법인세를 발견했을 때, 두 개념이 같은 층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무엇이 다른지 능동적으로 파악하려 했을 것이고 이는 법인세는 이윤에, 디지털세는 수입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세가 어떤 관점에서 법인세보다 국가에 이득인지 알 수 있었구요. 이 사고가 됐다면 그 다음 문단의 화제인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개념들 간의 층위를 파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과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또한 중요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 표시해야 할 대상은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표시에 집중하느라 이해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문 독해 후의 과정(문제 풀이 과정)을 위한 면이 있다보니 현재의 독해에 집중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죠. 이 면에만 주목하시는 강사분들은 지문 위에 표시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인 발상이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해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개념어에 표시하는 법부터 봅시다.

1. 개념어 (단어)

주로 도형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개념어를 보며 항상 그 층위를 파악해야 하기에 각 개념의 층위에 따라 다른 도형으로 표시합니다. 가장 상위개념은 네모, 그 아래는 동그라미, 그 아래는 밑줄로 크게 세 가지 도형을 씁니다.

대립되는 개념의 경우엔 세모를 이용합니다. 세모는 네모와 동그라미, 두 개의 층위를 모두 커버하는데 그 이유는 마땅한 아이디어가 잘 안떠오르고 대립어의 경우는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아 오히려 구분하면 번거로움 때문에 독해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립어의 경우 대립화살표(\leftrightarrow)로 무엇이 서로 대립되는지 표시하기 때문에 층위와 대립의 대상도 헷갈릴 일이 적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2. 서술 (문장)

문장이나 절 단위의 서술에도 분명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저는 괄호와 슬래쉬(/)를 이용합니다. 괄호에도 종류가 많고 똑같은 종류의 괄호여도 다른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죠.

가)-1 괄호 : 논증관계와 인과관계

개념들 간의 대표적인 관계는 세 가지. 대립관계, 논증관계, 인과관계. 대립관계는 문장으로 명시적이게 주는 경우는 드물고 이미 앞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논증관계와 인과관계를 보겠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모든 문장에 대해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구조 파악으로 의미 형성이 잘 된다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해를 위해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실전에선 복잡하고 높은 정보량을 가진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 논증관계 : DC 구조

논증관계는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이므로 -이다 가 대표적인 구조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등의 부사어를 통해 문장과 문장 간의 논증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합니다.

⟨Data (근거)⟩ [Claim (주장)]

*문장 내

일반적인 상황엔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인간은 사후(死後)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래와 같이 논증을 부정하는 경우엔 화살표에 X표시를 치며 간단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b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문장 외

두 문장이 논증구조로 이어져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인과관계 : CE 구조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구조를 하나 뽑기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여 쉽지 않지만 별 다른 노력 없이 잘 알아챌 수 있습니다.

< Cause (원인) > { Effect (결과) }

*문장 내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문장 외

DC구조와 똑같이 하면 됩니다.

- 예외 : 관계의 순서가 역전된 경우

크게 문제는 아닌데, 우리의 직관적인 의미 구성 순서와 반대인 경우 독해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애를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는 태도이죠. 이땐 문장 구조를 능동적으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이 DC구조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 예외 : 비례/반비례 관계

명백한 인과관계이지만 괄호를 쓰기엔 너무 미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엔 소괄호로 변수를 나누고 화살표로 증감을 표시하는 게 좋은데, 소괄호만 하고 옆에 메모를 간단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살표보다는 메모가 훨씬 알아보기 쉽거든요.

$$JK \propto SK \propto \frac{1}{CA} \propto \frac{1}{RFR}$$

(정책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메모를 할 땐 초성만 떼서 쓰는 편입니다. 이정도만 해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어요.

가)-2 괄호 : 이해의 대상 구분

지문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장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문장은 주술구조만으로도 완성됩니다. 이때 문장은 단 하나의 정보만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보량이 많은 문장은 여러 문장의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의 중심인 주술구조 이외의 문장들은 관형어, 부사어 등의 서술어로 변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잡한 문장에 한해서 이들을 구분하며 독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단 하나의 주술구조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이죠. 보통 소괄호()와 홑화살괄호(< > ; 꺾쇠)를 구분하여 이용하는 편인데 실전에서 굳이 항상 구분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문장들은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소괄호는 부사어에, 홑화살괄호는 관형어에 표시하고 관형어는 수식하는 대상을 그림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실전에서 모두 소괄호를 쓰는 편입니다.

나) 슬래쉬(/) : 흐름 전환의 능동적 반응

지문에선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기 때문에 몇 문장 단위로 정보의 흐름이 바뀌곤 합니다. 이는 문단으로 가시적이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문단 내에서, 혹은 한 문장 내에서도 정보의 역할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때 흐름이 많이 바뀌는 것 같으면 두 개를(/) 씁니다. 두 개 이상을 쓰는 건 지문 독해에 오히려 좋지 않더라고요.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정보량이 많은 문장의 경우 그 안에서도 슬래쉬를 씁니다.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구분을 위해 본 글에서는 슬래쉬는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 However

독해를 하며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정보는 세부 인과관계, 논증관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표시를 해 두어 필요 시에 돌아가면 돼요. 가져가야 하는 건 **흐름**입니다. 화제와 정보의 역할들. 이들의 조합을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 반전, 역전의 흐름은 분명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 그러나, 한편, 반면과 같은 부사들에 반응하여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어 지문에서 반응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러나, 한편, 반면과 같은 '역접의 부사' 위에 H라는 글자로 흐름에 반전이 있음을 표시하는 편입니다. 이 경우 사실 지문 독해 후의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지문 독해 과정에서 흐름이 머리에 더 잘 박힌다는 느낌이 들어 항상 놓치지 않고 반응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 여러 개의 주술구조

예외 상황이지만 굉장히 단순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개의 문장이 깊은 관계를 갖기보다는 단순 병렬적으로 접속소사를 통해 이어집니다. 어떤 때는 흐름의 분명한 구분을 위해 쉼표(,)도 같이 씁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슬래시를 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다.

- 예시 : 중요한 건 얼마나 실전에 도움이 되는가. 표시 체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득배하는 순간의 명의 변경은 100이라 할 때,
 (100을 1년 12월의 이월로 두자하는 게 낫다)
 99은 12월은 이월하는 데 투자하고
 10은 명의 12월은 12월 12월 12월
 득배해야 한다.

10

중요 내용반응
중요 구조반응

국어 영역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의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점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한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를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법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 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분명, 장담하건데, 시험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겁니다.

원래 항상 시험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실전 연습의 목적은 '낯설음'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또, 9월 평가원을 치고 난 뒤 피드백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이걸 왜 파악하지 못했지?'

이들을 절대 실수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단순 실수면 본인의 능력 밖의 영역이기에 극복할 수 없지만, 실력임을 인정하면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정확히 어떤 점이 부족했길래 내가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셔야 합니다.

지문 위 표시법은 주간케인에 항상 같이 수록하는 내용입니다.

주간케인 손글씨 해설 파트 보시면서 체화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p>직전 칼럼들</p> <p>[주간케인07] 첫문단 독해법 + 기출자료 https://orbi.kr/00031447089</p> <p>[주간케인08] 20.11 베이즈주의 https://orbi.kr/00031545037</p> <p>꾸준한 관심을 받는 칼럼들</p> <p>[칼럼01] 국어 19점에서 98%까지의 여정 : 경험담 (1부) https://orbi.kr/00026354806 (2부) https://orbi.kr/00026377783</p> <p>[칼럼02]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보내기 위한 1년 https://orbi.kr/00026702842</p> <p>[칼럼03] 구조독의 의의 https://orbi.kr/00027134854</p> <p>[칼럼04] 주간계획표 (1부) https://orbi.kr/00027590955 (2부) https://orbi.kr/00027596499</p>	<p style="text-align: right;">GIST해리케인</p> <p>광주광역시 거주 / 광주과학기술원 재학 피렘 교재 오프라인&온라인 검토진 시나브로 3모 대비 모의고사 검토진 다수의 국어 과외 경력 국어 : 5등급에서 1등급까지 20 수능 국어 백분위 98 그윽그윽, 구조독해, 정보필터링과 발체독 기출 분석 및 실전 실력 기르기 물리학 : 물리 I, II 내신 1등급 19 수능 물리 I 50 20 평가원 모의고사 물리II 1등급 물리 경시 및 연구 대회 등 다수의 수상 경력</p> <p>공부, 수험생활 상담 / 광주 지역 독서 과외 문의 eru13928@gamil.com 및 쪽지</p>
--	---

